

“광주 관광시대” 약속 불발탄... 민간사업자 무덤 된 어등산

11년째 제자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광주시, 공공성과 수익성 만족시킬 돌파구 찾아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2007년 4월의 일이다. 민선 4기 박광태 전 광주시장부터 시작해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1년째 사업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의미다.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됐던 특급호텔, 빛과 예술센터 등 13개의 휴양문화시설은 삼도 떠보지 못했다. 시민을 위한 관광단지 개발을 민간사업자에만 의존하면서 공공이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데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만한 수익성 보장에 실패하면서 개발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5년 끝나야 하는 사업, 2017년 사업자 선정=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산림청 등 5개 중앙부처, 전남지방경찰청 등 5개 지방기관, 24개의 관련부서 간의 협의를 완료해 승인고시한 시점은 지난 2007년 4월 3일이다. 관광단지 면적은 273만2775㎡에 달했으며, 사업 완료시기는 2015년 그리고 총사업비는 34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당시 시는 광주를 상징하는 ‘빛과 예술’을 주제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품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부지 규모도 현재(41만7531㎡)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어등산은 지난 1951년부터 1995년까지 44년동안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훼손된 곳으로, 시는 친환경적으로 이를 개발·복원해 국제수준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 서남권의 관광거점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광주 관광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특수목적법인 지분 4차례 변경에 5년간 소송전=할 추진될 것이라는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의 첫 번째 암초는 불발탄이었다. 본격적인 개발을 서두르던 민간사업자는 4년 6개월간 불발탄 1365발을 제거하는데 시간을 허비했고, 이 과정에서 재정난을 겪던 광주 유수의 건설업체들이 지분을 넘기면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졌으며 결국 2012년 5월 (주)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나긴 소송전에 들어갔다. (주)어등산리조트는 2014년 부동산(유원지, 경관녹지) 및 대중제 운영 순수이익의 기부 무효, 골프장 소유권 이전 및 유원지 공영개발방식 시행 의무 확인 등을 위해 2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년 6월 광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강제조정 내용

은 알려진대로 ▲유원지 및 경관녹지 부지 시에 기부 ▲유원지 개발 지출 투자비 229억원 지급 ▲대중제 9홀 순수익 사회복지장학재단 계속 기부 ▲골프장 부분 준공검사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이었다. 하지만 (주)어등산리조트는 다시 2016년 12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소를 취했다.

◇의견수렴만 계속...결론내지 못하는 개발행정=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불가피하다. 찬반이 명확히 갈리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받는 공공기관은 찬반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일관성있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시기와 기회를 모두 놓치고, 다시 갈등과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6기 들어 2014년 12월 윤장현 광주시장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주민대표, 시의원, 관계기관 등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 TF’를 구성하고 대처해 나갔다. 또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 회의를 하는 등 3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공공기관은 개발 이익을 환수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특별시비를 차단하면서 개발의 정당성을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안·정 약수 “당 안정이 중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1권역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한 안철수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약수를 하고 있다. 맨 왼쪽은 천정배 의원 부인 서의숙씨. /연합뉴스

국민의당 최고위원 누가 나설까

8·27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당권주자와 러닝메이트... 내일 후보군 윤곽 드러날 듯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는 10~11일 이들 동안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여부와 당권 주자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짜여 지는 최고위원 선거에 누가 나설지 주목된다.

일단 안 전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동고동락 고문단의 잇단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안 전 대표 캠프 본부장을 맡은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안 전 대표의 출마 포기를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출마를 접는다는 것은 정계은퇴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안 전 대표가 당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더 지속하고 반성할 시간을 가지라”며 출마를 접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 전 대표와의 1대1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에서 열린 TV 토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특정인의 사당(私黨)화보다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며 지지자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와 러닝메이트 성격을 띠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당 대표에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는데다 선출직 최고위원 정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당내 상황도 복잡해 정치적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일 후보 등록 막판에 최고위원 후보군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안 전 대표의 출마 명분이 전대를 앞두고 쟁점인 상황이다. 일단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흐름이 우세한 가운데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정치적 현실론도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여기에 안 전 대표 주변에서 제기되는 ‘탈 호남’과 ‘전국정당론’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전체 당원 가운데 호남 당원이 54%에 이르는데다 타 지역 당원들도 호남 출신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탈 호남’ 논란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는 16일 지도부에 보고될 ‘대선 백서’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백서에 국민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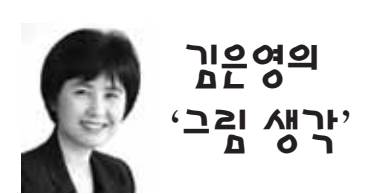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TV 토론도 주목된다. 안 전 대표가 정동영·천정배 의원의 공세를 막아내고 지난 대선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인지가 변수다.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관망세가 강한 가운데 직접 시점이 되면 후보로 표를 몰아주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호남의 월들이 결집, 당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미레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최근 황주홍 전당대회준비위원장(전준위원장) 등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사퇴해 공석이 된 당직에 새 인사들을 임명했다. 이에 김관영 선관위원장이 전준위원장을 겸직하고 전준위원으로 이근태 기획조정위원장을, 선관위원에 심종기 사무부총장과 이현우 조직위원장을 새로 선임했다. 또 배준현 비대위원 자리에 이태규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국민의당 경선 기탁금은 당 대표 7000만원, 최고위원 3000만원, 여성위원장 1000만원, 청년위원장 3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선거인 명부는 지난달 28일 자정 기준 총 24만287명의 당원으로 확정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누군가 방금 물 속으로 ‘침방’ 다이빙 했다



(192) 피서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태양을 피하고 싶어서/아무리 달랠보아도/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대중가수 비가 불렀던 노래에서처럼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 이 찌는 듯한 더위를 벗어나고 싶은 날들이다. 태양을 피하고 싶은 이유야 노래를 불렀던 가수와 다르겠지만, 도무지 이 여름을 견디기가 어렵다. 입추가 지나서도 꺾이지 않는 이 긴 여름 더위를 피하려고 이어지는 피서 행렬에 다시 동참하고 싶어진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1937~)의 작품 ‘더 큰 침방(A Bigger Splash)’(1967년 작)은 누군가가 방금 물 속으로 ‘침방’ 다이빙한 흔적만으로도 더위를 가시게 한다. 누군가가 뛰어든 물보라 속으로 금방이라도 뛰어 들어 풍덩하고 들어가 수영하고 싶게 하는 그림이다.

여가와 이국적 정취가 숨쉬는 일련의 수영장 그림을 여럿 그렸던 호크니의 작품은 특히 기하학적 건축물에서 보이는 디자인적 감각과 대담한 색채, 시원한 물보라가 부서지는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어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런가 하면 일렁이는 물결에 대비되는 정적 이미지가 묘한 여운을 주기도 한다. 분명 동적인 순간임에도 시간의 흐름을 거부한 듯한 ‘움직임의 움직임’이 오래 바라볼수록 눈을 땄 수 없게 만드는 공허함과 고요함으로 남는다.

그가 없었다면 미술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받



데이비드 호크니 작 ‘더 큰 침방’(1967년 작).

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호크니는 화가와 드로잉작가, 판화가, 사진가, 무대 디자이너로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호크니의 그림은 패션계와 영화계에서도 주목을 받아 그 제목 그대로 영화 ‘A Bigger Splash’로 제작되어 개봉되기도 했다. 최근 파리 포피두센터에서 160점이 넘는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 전’이 열려 애호가들을 반긴다고 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무안출발 일본여행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 가족·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출발일 : 8월 5일(토) ~ 10월 9일(월) 까지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레이어

8/11(금) 출발 ※선착순 한정특가
북큐슈 펜션특가 4일 499,000원부터

8/14(월) 출발, 8/17(목) 출발
북큐슈 실속특가 4일 559,000원부터

항공 4일(매주 월요일, 목요일)
북큐슈 4일 699,000원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부터

야마구치 4일 799,000원부터

큐슈·오사카 4일(단, 한반) 79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일정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효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4(수)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ALL 포함)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10/9(월) 출발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9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후에, 호이안 3박5일

〈무안출발〉 티웨이항공

9/19(화), 9/22(금) 출발

준특급 499,000원부터 특급 599,000원부터

8/23(수), 26(토), 29(화)

9/1(금), 4(월), 7(목), 10(일), 13(수), 16(토)

10/14(토), 17(화), 20(금), 23(일), 26(목), 29(일)

준특급 699,000원부터 특급 79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 식사, 차량, 한국민간기택, 입장료,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 공통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타 비용(\$40/1인), 여권, 공항 수속, 개인경비, 선착 관광, 메니얼, 상급차(8박준특급 \$120, 특급 \$230)

<항공왕복> 제주도 웰빙 2박3일

349,000원부터

7/21(금)~8/20(일)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환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당사항), 1억원,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 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작성 ◆ 예약시 계약서(유상)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